

# 環境을 고려한 개발만이 生存을 보장한다

**지구** 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동물들 중 가장 거대한 체구와 엄청난 힘을 가졌던 공룡이 왜 멸종되고 말았을까 하는 데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룡이 가장 번성했던 중생대 말기의 지층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공룡 자체의 특성에 멸종의 원인을 두는 시각도 있다.

즉 체구와 힘에 있어서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던 공룡이 그 엄청난 식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동·식물들을 닥치는대로 먹어 치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존에 필요한 식생여건을 스스로 파괴하는 우를 범해 멸종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힘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먹이사슬을 이루되 최소한의 균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서로의 생존여건을 유지시켜 나가는 법인데 이 공룡이란 동물은 자신들의 생존과 종족 번식에만 욕심을 부려 다른종족과의 공존을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체구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엄청난 식욕으로 생물류를 닥치는대로



李光薰  
(중앙경제 사회부기자)

먹어 치웠다.

지구 생물의 초기단계였던 당시에는 생물군의 분포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공룡의 이같은 엄청난 식욕에 견디지를 못해 멸종되고 말았다.

거대한 체구와 엄청난 힘으로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여 지구 전체를 주름잡기는 했으나 스스로 그 먹이사슬의 씨를 말려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도 멸종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공룡이 가장 번성했던 중생대 말기에 식물계에 큰 변혁이 일어났었고 이때 그 많은 공룡들이 한꺼번에 멸종되고 말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생물보다 강력한 힘을 지녔던 공룡의 번성과 멸종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말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모조리 파괴해 버리면 결국에는 자신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도시화·산업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공룡화」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말을 공룡의 크기와 강력한 힘에만 비유해서 사용할뿐 현대사회의 인간들과 중생대의 공룡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대사회를 「공룡화된 사회」라고 할때는 인간들이 깨닫고 있던 깨닫고 있지 못하든간에 우리 자신들도 이미 공룡과 비슷한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다음 세기에 가면 지구 인구가 2배로 늘어나고 경제규모는 10

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 등 각종 자원도 10배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지구상의 자원은 그같은 목표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음 세기의 지구는 인간들의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태계 자체의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중생대 말기의 공룡이 범했던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지구가 인간의 왕성한 개발욕구를 견디지 못해 자멸해 버리면 인간 다음에 지구를 차지할 종족은 오늘날의 인간과 중생대의 공룡을 똑같이 어리석은 동물로 기록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존과 발전에만 눈이 어두워 생태계 질서를 마구 파괴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들도 멸종되고 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동물 쪽으로 말이다.

최근들어 「환경을고려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꼭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리적 수용능력만을 감안해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개발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환경적 수용능력까지 고려해 가면서 개발하자는 것이 최근 UN이 주도하고 있는 지구 환경협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



**지금까지 우리는 물리적  
수용능력만을 감안해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개발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환경적  
수용능력까지 고려해  
가면서 개발하자는 것이  
최근 UN이 주도하고 있는  
지구 환경협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을 하자는 것이다.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에 피해를 주지않을 뿐더러 개발전의 환경여건을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개발을 해야 지

금의 한정된 자연자원속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축구를 「규제」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시각은 이런 차원으로 하루 빨리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원래 정글지대였다고 하는 사하라사막도 인간이 개발을 하면서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한다.

리비아는 지금 이곳에 무려 60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사막을 다시 옥토로 바꾸기 위한 대수로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같은 곤욕을 치루게 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의 자연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